

# 총선 재외투표... 113개국서 ‘선택 4·13’

### 뉴질랜드서 스타트 내달 4일까지 15만4217명 등록 한 표 행사

4·13 총선 재외투표가 30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4·13 총선의 재외투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에서 30일 오전 8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4시) 스타트를 끊었으며 2시간 후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주말을 포함해 다음 달 4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 분관 1245명, 웰링턴 122명 등 모두 1367명이 재외 유권자로 등록했다.

호주에서는 모두 2933명이 재외 유권자로 등록했으며, 브리즈번을 포함한 시드니 총영사관에 등록된 사람이 73%인 2148명이다. 멜버른이 530명, 캔버라가 255명이 등록했다.

시드니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제현 한국전력 호주현지법인장은 “생업을 가진 분들이 먼곳에서 일부러 투표하러 오는 것을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 같다”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 사람이 투표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양주에서는 피지에서 190명, 파푸아뉴기니에서 85명이 유권자로 등록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대사관과 광저우(廣州),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시안(西安), 우한(武漢), 청두(成都), 징다오(靑島), 홍콩 총영사관, 다롄(大連) 총영사관 등 10곳에서 재외투표가 시작됐다.

중국에서는 예상선거인수의 7.3%인 2만 1637명이 투표를 위한 신고등록을 마쳤다. 김장수 주중 대사 부부는 대사관 경제동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10시

투표를 했으며 이숙순 재중한인회장 등 재중 동포들과 기업체 인사, 학생 등 50여 명이 오전에 투표를 마쳤다.

선양시내 주 선양총영사관 1층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도 오전 8시(현지시간)부터 투표가 시작됐으나 투표 등록자 767명 가운데 오전 9시30분 현재 1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에서 4만명 거주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보완됐으나 중국 당국이 재외공관 외 별도의 투표소 설치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도쿄(東京), 고베(神戸), 나고야(名古屋), 니가타(新潟), 삿포로(札幌), 센다이(仙台), 오사카(大阪), 요코하마(横浜), 후쿠오카(福岡), 히로시마(広島) 등 10곳에 30일부터 재외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는 현지 공관 사정에 따라 문화원, 총영사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현지

본부 건물, 제3의 장소 등에 각각 마련됐으며 4일까지 운영된다.

각 지역 총영사 또는 총영사관 관계자는 30일 투표를 차질없이 개시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사이타마(埼玉)와 지바(千葉) 등 6곳에는 4월 1~3일 추가 투표소가 설치된다.

도쿄에 있는 주일한국문화원 투표소에서는 30일 오전 8시 2분 투표를 개시했으며 오전 9시 현재 64명이 투표를 마쳤다. 재외투표는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총선 재외투표는 내달 4일까지 113개국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재외투표에 등록된 유권자는 총 15만4217명이다. 재외유권자는 거주 또는 재외선거 신고·신청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으므로 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연합뉴스

## 미국 “中 반대해도 한국에 사드 배치 한다”

미국 정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해서 추구하는 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은 특히 사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 방어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 정부에 사드의 기술적 성능과 제원을 설명하겠다고 제안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강연을 통해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한다면 우리 스스로와 동맹·우방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점점 더 긴박하고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대외적 사례로 지목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북한은 소형화된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더욱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지도자가 있어 위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사드의 기술적 성능과 제원을 설명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그는 “중국은 우리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드가 무엇인지,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준비가 돼있다”며 “우리의 희망은 중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것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란과의 핵 합의는 우리가 실용적 결과를 얻기 위해 심각한 입장차를 가진 나라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북한이 이런 핵합의 모델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 지구촌 SNS 요지경



## 트럼프 막말, 샌더스에 돈 물어다 준다

### 트위터 올릴 때마다 15원 자동 기부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69)가 트위터를 통해 쏟아내는 막말을 막기 위해 신생 IT기업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도시 에반스톤에 기반을 둔 온라인 기부 서비스업체 ‘아이키도’(iKeedo)는 특정 행동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정액을 반복해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지난 11일 3개의 캠페인

에 착수했다.

그 가운데 첫번째 캠페인은 트럼프의 막말과 혐오 발언에 부메랑 효과를 안긴다는 목적으로 고안됐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마다 모인 돈을 트럼프의 잠재적 경쟁 상대인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74) 상원의원 지지단체에 자동 기부되도록 한 것이다.

캠페인 참가자들이 최소 10센트(약 15

원)부터 시작되는 회당 기부금과 총 한도액을 해당 코너에 입력하면 트럼프가 트윗을 날릴 때마다 샌더스 의원 공개지지를 선언한 시민정치운동단체 ‘무브온’(MoveOn.org)이 기부를 받게 된다.

‘아이키도’ 설립자 크리스 오브라이언은 “각자가 매사에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29일 현재 안티 트럼프 캠페인에는 24명이 참여해 851달러를 모금했고 총기규제 강화 캠페인에는 40명이 참여해 1572달러를 모금하는 등 3개 캠페인에 74명이 참여해 총 2천530달러를 기부했다.

이들은 “캠페인 운영 조직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는 않겠지만 극단적 백인우월단체 쿠클럭스클랜(KKK) 등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곧 못 볼지도 몰라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에서 만화 캐릭터 분장을 한 근로자들이 걷고 있다. 한편 뉴욕 시의회는 타임스스퀘어의 특정 구역에서 이뤄지는 상업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화 캐릭터 분장 근로자 또는 나체로 바디페인팅한 여성이 사진을 찍고 틈을 받는 행위, 버스 티켓 판매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연합뉴스

## 대담한 인질, 비행기 납치범에 “저 사진 한 장만...”

이집트항공 여객기 화재

이집트항공 여객기를 공중 납치된 법인과 활짝 웃으며 인증샷을 찍은 대담한 인질의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사진 속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남은 인질인 영국인 벤 이네스(26)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네스는 “승무원에 통역을 요청해 함께 셀피를 찍을 수 있는지 물었고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좋다고 답해서 그 옆에서 서서 카메라를 보고 웃었다”며 “내 인생 최고의 셀피”라고 말했다.

또 가까이서 보니 폭탄이 가짜 같았다며 “내 자리로 돌아가 다음 행동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치 소동을 벌인 이집트인 셰이프 엘딘 무스타파(59)가 허리에 차고 있던 폭탄 벨트는 휴대폰 케이스를 천으로 연결해 묶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어떤 폭발 물질도 들어있지 않았다.

키프로스 일간지 키프로스메일은 이집트항공 승무원이 대치 당시 키프로스 당국의 대응에 불만을 털어냈다고 전했다. 이 승무원은 또 범인이 터키 이스탄불로 가겠다고 급유차를 요구해 당국자들에게 도망

갈 수 있도록 무장 요원이라도 태워 보내달라고 했지만 다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부기장은 납치범을 안정시키려다 소용이 없자 조종실로 돌아가 창문을 깨고 도망쳤으며, 이에 납치범은 모든 요구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인질 2명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도 카이로로 향하던 이집트항공 국내선 여객기를 납치해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 착륙시키고 망명 등을 요구한 무스타파는 1994년까지 키프로스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여객기 납치범(왼쪽)과 인질 벤 이네스.

## 중국, 10만km²에 인공비 퍼붓는다

중국 당국이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헤이룽장(黑龍江)성에 대한 인공강우를 강화키로 했다.

30일 홍콩강일보에 따르면 중국 환경부와 헤이룽장성 정부는 최근 ‘인공기상조절 안전관리 체제 강화’ 의견을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농업지대의 이상고온과 가뭄, 폭우 등에 이같이 대응할 방침임을 공개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5년간 인공기상조절 시스템을 중점 구축하고 현대화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48억t 이상의 인공비를 만들 계획이다.

한반도와 가까운 헤이룽장성 내 인공비 강수량은 약 10만km²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회사 사정상 급매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 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후 20억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수학여행, 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3억)후 연 5억원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